

## 제1과

제목: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핵심구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사 47:4).

장 전체: (46-47장, 기재하지 않음)

## 서문

구약성경을 이해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시온사상입니다. 그리고 그 시온사상이 아름답고 감동적인 시 형식으로 표현되어진 곳이 이사야서입니다. 구약성경을 쓴 대다수의 저자들은 글로써 수천 년을 나라 없이 혹은 나라를 잃고 떠돌이와 노예로 살아온 자기 민족을 구원한 수재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일관(一貫)된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이 있었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이 시작되고 실현되는 드라마틱한 감동 스토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및 여호수아서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스라엘의 부침(흥망성쇠)의 역사는 앞선 스토리가 몇 차례 반복되고 재현되는 또 다른 눈물겨운 감동 스토리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후반부는 창세기나 출애굽기 사건들에 잇대어져 있습니다.

시온사상의 핵심은 ‘시온에로의 오름’(히브리어로 ‘알리야’라 함)으로써 유대인들의 집단 무의식에 해당됩니다. 이 사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에 바탕을 두고 있고, 아브라함 이후 4천년 역사 가운데 3천년을 떠돌이와 노예로 살아온 유대인들이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지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게 한 원동력입니다. 이사야서에 이 사상이 매우 감동적인 시적 표현들로 묘사되어 있어서 이사야서만의 특징일 것 같지만 실상은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맥락입니다. 그래서 시온사상의 원천은 창세기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야훼는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돌려놓습니다. 창세기에서 흘러나온 시온사상의 강줄기는 출애굽기를 거쳐 흐르고 흘러서 메시아(그리스도) 사상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사실 창세기는 이미 혈통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확고하게 희망(히브리어로 ‘하티크바’ 곧 ‘그 희망’이라고 함)하는 자들의 계보의 시작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사야 46-47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46:13)는 것과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47:4)는 선지자의 외침을 경청해야 합니다.

1.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엮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46:1-7).

이사야서 46장 1-7절은 우상 신들과 하나님 야훼와의 극명한 차이를 밝히 보여주면서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라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면서 우상 신상들은 6-7절에서 “사람들이 주머니에서 금을 쏟아 내며 은을 저울에 달아 도금장이에게 주고 그것으로 신을 만들게 하고 그것에게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을 들어 어깨에 메어다가 그의 처소에 두면 그것이 서 있고 거기에서 능히 움직이지 못하며 그에게 부르짖어도 능히 응답하지 못하며 고난에서 구하여 내지도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손으로 만든 우상 신상들의 한계입니다. 우상 신들은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며, 다리가 있어도 걸지를 못하여 짐승이 끄는 마차에 실려 옮겨져야 하고, 사람의 손에 세워져야 하며, 자기들을 경배하는 인간들을 도울 수 없을뿐더러 자기 자신들

조차 도울 수 없어서 끝내는 넘어져 부러지고 마는 거짓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사야는 46장 1절에서 “벨은 엎드러졌고 느보는 구부러졌도다. 그들의 우상들은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으니, 너희가 떠메고 다니던 그것들이 피곤한 짐승의 무거운 짐이 되었도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벨(Bel)은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을 말하고, 느보(Nebo, Nabu)는 문학과 웅변의 신을 말합니다. 그들이 “짐승과 가축에게 실렸다”의 의미는 그것들을 경배한 인간들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주거나 가볍게 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경배하는 인간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의 특징입니다. 우상 신들은 그것들이 돈이든, 명예든, 권세든, 그것들이 무엇이든지간에 그것들을 숭배하는 인간들에게 피곤한 짐이 되고 맙니다. 게다가 바빌론의 창조신화에서는 인간들이 신들의 노역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예들에 불과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근동, 이집트 등에서는 왕들이 신의 아들들, 신의 현현, 그들이 통치한 나라들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백성은 그들의 노예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야훼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살아계시며, 흑암을 빛으로, 혼돈을 질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창조주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과 나라를 언약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낳 때부터 품에 안고 업어서 키우시는 분이시란 것입니다. 이토록 사랑이 지극하신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서 3-4절에서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하시면서 결단을 촉구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풍중에서 죽음의 위기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막 4:40)라고 하신 말씀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한 야훼의 위로와 기쁨의 소식은 흑암 속에, 혼돈 속에, 죽음과 같은 상황에서 몸부림치며 좌절하고 있는 자기 백성에게 주신 한없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 2.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사 46:8-13).

46장 8-13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내가 나의 공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그것이 멀지 아니하나니, 나의 구원이 지체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빵이 부족한 것 때문에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다섯 개를 오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열둘이니이다. 또 일곱 개를 사천 명에게 떼어 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일곱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막 8:17-21)라고 하신 후에 맹인의 눈을 고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만물을 밝히 보게 하시며, 또 귀덕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 주시고 그로 하여금 말이 분명하도록 하신 후에야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하신 것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야훼는 이사야의 입을 빌려 46장 1-7절의 말씀들을 근거로 믿음의 끈을 놓으려는 자기 백성, 희망의 끈을 놓으려는 자기 백성, 인내의 끈을 놓으려는 자기 백성,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끈을 놓으려는 자기 백성을 다잡고 계십니다. 46장 10-11절,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를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를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는 말씀은 이미 바로 앞장인 45장에서 언급하였듯이,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광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퀴루스)를 염두에 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3.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사 47:1-7).

이사야 47장은 바빌론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바벨론을 “처녀 딸”로 의인화합니다. 여기서 “처녀 딸”은 당시 바빌론이 자랑하던 여신 이슈타르(Ishtar, 가나안의 여신 아스다룻과 동일)와 깊은 상징적 연관이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로마 및 근동에서는 도시의 상징으로 여신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테네의 아테나, 고린도의 아프로디테, 로마의 로마, 에베소의 아르테미스 등이 그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1-3, 5절에서 “처녀 딸 바벨론이여, 내려와서 티끌에 앉으라. 딸 갈대아여, 보좌가 없어졌으니, 땅에 앉으라. 네가 다시는 곱고 아리따다 일컬음을 받지 못할 것임이라. 멧돌을 가지고 가루를 갈고 너울을 벗으며 치마를 걷어 다리를 드러내고 강을 건너라. 네 속살이 드러나고 네 부끄러운 것이 보일 것이라. 내가 보복하되 사람을 아끼지 아니하리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며 바빌론의 멸망과 치욕을 선포하십니다. 반면에 4절과 6-7절은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멧돌을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며 이스라엘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이사야 47장은 계시록 18장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사야 47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신 반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 보낸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힘찬 음성을 빌려 바빌론의 멸망을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계 18:2).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계 18:10).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계 18:7).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계 18:2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사 48:20).

4.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사 47:8-15).

47장 8절,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는 46장 9절,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

은 이가 없느니라.”의 표절에 해당됩니다. 46장에서 강력히 언급되었듯이, 사람들이 이슈타르를 신격화하고 도발적인 힘을 부여한다고 해도 사람의 손으로 조각된 말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는 숨을 쉬지 않는 석상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고, 실제로는 없는 거짓 신이기 때문입니다. 바빌론의 실상이 그러하다는 뜻입니다. 바빌론이 강력한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했지만, 그들이 자랑하는 힘과 권세는 본래 그들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써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수행하라고 잠시 빌려준 것에 불과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그것을 거두어가시면 그들에게 남는 것은 두 팔 벌린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바빌론은 그런 사실을 망각하고 말하기를, “나는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는 신적 자만을 드러낸 것으로써 이슈타르 숭배 문화와도 연결된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 곧 바빌론의 상징 이슈타르에게 9-11절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한 날에 갑자기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임할 것이다. 네가 무수한 주술과 많은 주문을 빌릴지라도 이 일이 온전히 네게 임하리라. 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47장 12-15절의 말씀은 이 같은 현실이 바빌론이 자랑하며 의지하던 점성술과 마술마저도 무력하여 그들을 구원할 수 없다고 선포하십니다. “이제 너는 젊어서부터 힘쓰던 주문과 많은 주술을 가지고 맞서 보라. 혹시 유익을 얻을 수 있을는지, 혹시 놀라게 할 수 있을는지, 네가 많은 계략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게 되었도다. 하늘을 살피는 자와 별을 보는 자와 초하룻날에 예고하는 자들에게 일어나 네게 임할 그 일에서 너를 구원하게 하여 보라. 보라 그들은 초개같이서 불에 타리니, 그 불꽃의 세력에서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이 불은 덥게 할 숯불이 아니요, 그 앞에 앉을 만한 불도 아니니라. 네가 같이 힘쓰던 자들이 네게 이같이 되리니, 어려서부터 너와 함께 장사하던 자들이 각기 제 길로 흩어지고 너를 구원할 자가 없으리라.”

이슈타르 숭배는 주술적 의례와 밀접했고, 바벨론의 종교 체계는 천문학과 점성술에 기반을 두었습니다. 이사야 47장은 직접적으로 이슈타르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지만, 바벨론의 여성적 의인화, 교만한 신격화, 그리고 주술적 종교 체계에 대한 비판을 통해 이슈타르 숭배에 대한 상징적 해체를 담고 있기도 하고, 단순히 바벨론의 멸망과 다가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한 것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한분만이 참 신이시며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며, 바빌론 문명의 종교적 중심축을 무너뜨리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을 위해 고레스(퀴루스)라는 인물을 세우셨고, 그로 하여금 바빌론을 붕괴시키고 포로로 잡혀온 민족들을 각자의 고토로 돌아가도록 칙령을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 맺는 말

하나님은 우리가 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대신 져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사야 46장과 47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이 진실로 이스라엘을 위하시고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참된 어버이이신 하나님 야훼께 있다는 것을 강력한 음성으로 외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을 대신 져줄 참된 신이 누구이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바벨론이 자랑하던 우상 신들과 점성술과 마술 등으로 인한 교만은 바빌론에 무거운

짐이 되어 스스로를 파멸시켰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졌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없었으며, 결국은 티끌이 되고 불에 타는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일하시고 영원하시며 전능하신 야훼 하나님이 아닌 유한하고 일시적이며 허망한 세상의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에 우리의 인생을 맡긴다면, 그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 우리를 좌절시키고 실망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줄 영원한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품에 안고 업어주셨고, 우리가 노년에 이르러 백발이 될 때까지도 변함없이 품고 구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시므로 어떤 형태의 교만도 그분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찬송가: 새536장(통326장), 새538장(통327장)

말씀을 새기며

1. 나는 무엇에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내가 만든 우상입니까? 지금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우상”처럼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 하나님께서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겸손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 제2과

제목: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핵심구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사 48:17).

장 전체: (48장)

## 서문

이사야는 제2 출애굽 사건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이 사건을 성취하실 분이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일찍이 모세를 통해서 제1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전능하신 구세주 야훼 하나님임을 선포합니다. 창세기에서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창 15:13)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창 28:15)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고토 귀환’이란 대 명제가 함축된 말입니다. 이 명제는 족장시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이스라엘 역사, 그 중에서도 특히 바빌론 유배기의 ‘그 희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가나안 땅으로”라는 구절이 네 차례 정도 나옵니다. “가나안 땅으로”는 유대인이라면 마땅히 행해야 할 ‘오름’(알리아,  $\text{אֲלִיָּה}$ , Aliyah)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이 위대한 점은 다른 아닌 바로 이 ‘오름’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희망’(히브리어로 ‘하티크바’라 함)과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의 탄탄한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는 이스라엘의 현실을,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땅과 나라)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는 ‘그 희망’을 함축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70년이 거의 되도록 지속된 유배생활에 지치고 절망한 백성들이 입술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이고, 행동에는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함이 없다는 뜻으로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행방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시작하셨다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 1.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사 48:1-5).

이사야 48장 1절,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와 4절, “너는 완고하며, 네 목은 쇠의 힘줄이요, 네 이마는 놋이라.”는 말씀은 48장 1-6절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2절에서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부른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야훼께서 창조주이신 것과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민족의 구원자시란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땅과 나라에 대한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과 그 희망(히브리어로 ‘하티크바’라 함)을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70년이 거의 되도록 지속된 유배생활이란 현실이 가혹하고 노예와 떠돌이의 삶에 지치고 절망한 백성들은 입술과 머릿속으로만 하나님 야훼의 살아계심을 믿을 뿐이었고, 행동에는 그분의 언약에 대한 신실한 믿음과 옳음 곧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그 희망의 끈을 거의 놓을 지경 곧 불신앙이 돌처럼 굳어지고, 노예들을 묶는 쇠줄과 놋처럼 야훼가 주시는 열쇠가 없이는 풀기 힘든 상태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하

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착수 하셨다며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48장 5절에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네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네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큰 시험거리는 야훼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아무런 형상이 없으시며, 여신도 없고, 신화도 없이 다만 선지자들을 통해서 종종 윤리적인 권면만 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바빌론의 권세와 문명과 학문은 자기들보다 월등하며, 대국으로써 많은 민족들을 통치할 뿐 아니라, 야훼를 섬기는 자기들은 지금 그 바빌론의 노예로 유배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고대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고, 왕들은 그 신들의 아들, 계시, 현현, 혹은 나라의 수호신들이었습니다. 바빌론에서 유대인들은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하지 못한 신이 우리가 믿는 신들 곧 너희 신을 정복한 우리의 신들보다 어떻게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며 조롱당하였을 것입니다. 반면에 예언자들은 그게 무슨 헛소리냐면서 야훼만이 참 신이시고, 나머지는 돌과 나무를 깎아 만든 죽은 신들일 뿐이며, 언약을 어기고 야훼를 멀리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잠시 유배되었을 뿐, 신실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 민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그 항변 가운데 몇 구절이 47장 4-7절, “우리의 구원자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딸 갈대아여,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네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네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말하기를, 내가 영영히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며,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2. “이제 내가 곧 일어날 새 일을 네게 알려 줄 터이니... 은밀한 일이다.”(사 48:6-11).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지치고 좌절한 자기 백성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해방시키려는 계획을 이미 착수하셨다는 뜻으로 하신 말씀이 48장 6-11절입니다.

[6-8] 네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네가 알지 못하던 은밀한 일을 네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9-11]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 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6-11절의 말씀은 6-8절 부분과 9-11절 부분으로 나뉘어서 숙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6-8절은 하나님께서 비밀로 해왔던 은밀한 계획을 공개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밀한 계획은 제2 출애굽 사건이라고 일컬을만한 탈바빌론 사건을 말합니다. 그런 만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선전” 혹은 “선포”는 일부 중요 사본들에서 “인정”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인정”은 하나님이 하신을 일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태

도이고, “선전”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널리 알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2 출애굽 사건 또는 탈바빌론 사건을 “새 일” 혹은 “은비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옛 것”이 아니라,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네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네가 정녕 배신하여 모태에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왜 하나님은 유대민족의 구원의 계획을 비밀에 붙이셨고, 자기 백성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을까요?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하셨어도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몰랐던 새로운 일, 새로운 계획 혹은 하나님조차 이전에 몰랐던 은밀한 비밀이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창조된 것,” “새 일” 혹은 “은비한 일”이란 모두 하나님을 더디 깨닫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뜻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들은 모두 만세 전에 세워진 것들입니다. 그것이 백성에게 선포된 시점에 있어서 “새 일”이고 “은비한 일”이며 “옛 것”이 아닌 “지금 창조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에베소서 3장 3-9절에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을 알게 하셨는데, 그 “그리스도의 비밀”은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으로써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비밀인 이유는 다름 아닌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분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그리스도란 사실을 당대에도 믿지 않았지만, 지금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였으니, 그 사실이 유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비밀병기, 하나님의 히든카드, 하나님의 슈퍼스타, 구원을 위한 제3의 대안, 세상이란 밭에 감춰진 보화, 세상이란 진흙 속에 묻힌 값진 진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였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고레스(퀴루스)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 만세 전에 계획하신 “새 일”이요 “은비한 일”이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곧 고레스의 칙령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비한 계획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난의 용광로에서 단련하고 계셨다고 말합니다. 10절,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 하나님은 이 놀라운 사건을 “나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를 이를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당신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끈을 결코 놓으실 수 없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언제나 신실하시고 시간에 늦지 않게 성취하시는 일에 결코 실패가 없으신 이유입니다.

3.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사 48:12-22).

48장 12-22절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출애굽 사건의 구원자 되심을 다시 강조

하면서 자기 백성을 향해 제2 출애굽 곧 탈바빌론 구원이 펼쳐질 것을 선포합니다. 12-13절,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뿔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는 야훼가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의심치 말라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이미 여러 번 앞장들에서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 밖에 신이 없다.”(43:11, 45:5-7, 18)라고 선포하셨고,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45:7, 40:26, 28, 41:20, 42:5, 45:12, 18)며 창조주 되심을 친히 선포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43장 1절에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또 43장 15절에서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고 하셨으며, 친히 창조하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레스(퀴루스)를 세우셨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48장 14-15,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입니다. 여기서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은 “여호와가 택하신 동맹자”[TNIV]로 번역되기도 하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는 “우상들 가운데서 누가 이런 일들을 알려 준 일이 있었느냐?”[새번역]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말씀은 바빌론 혹은 갈대아인을 쳐서 무너뜨리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해방시킬 하나님의 동맹자로 고레스가 선택되었음으로 말해줍니다.

48장 17-22절은 야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굳건히 할 것을 강하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언약을 믿으면 살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믿으면 살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7절, “너희의 구속자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신뢰를 굳건히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한 것이고, 18-19절,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네 자손이 모래 같았겠고, 네 몸의 소생이 모래 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리라.”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우상들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지 못한 자기 백성의 현주소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는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종 야곱을 속량하셨다' 하고, 즐겁게 소리를 높여서 알려라. 이 소식이 땅 끝까지 미치도록 들려주어라.”[새번역]는 뜻이며, 계시록 18장 4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에 맞닿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1-2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어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에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는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있었던 반석의 물과 만나를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야훼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반석의 물과 만나가 오병이어의 표적처럼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하지 아니하지만, 야훼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곧 악인에게는

그 같은 표적이 그쳐버리고 말라버림으로 평강이 변하여 원망과 절망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할지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 맺는 말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유일하신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부르셨으며, 그분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의 족쇄에 묶여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인내의 끈을 놓아버린다면, 그 족쇄가 단단한 쇠줄과 놋처럼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풀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는 족쇄를 풀어버리고 자유와 평강을 마음껏 누릴 열쇠 곧 야훼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 바빌로니아(갈대아) 사람들에게서 도망하여라.”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성경 66권의 핵심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실 뿐이십니다. 물론 때로는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야훼이십니다.

찬송가: 새347장(통382장), 새357장(통397장)

####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 48장에서 지적하는 신실한 믿음과 옳음이 없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과는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2.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를 고난의 풀무 불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신 것이 내가 겪었던 고난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해될 수 있을까요?
3.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오너라.”라는 말씀이 나의 삶에서는 무엇에서 나와야 하는 걸까요?

### 제3과

제목: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핵심구절: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전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6).

장 전체: (49장)

### 서문

이사야 49장은 42장, 49장, 50장, 53장에 나타나는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두 번째 노래입니다. 49장은 종의 사명과 고난,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의 확장을 보여줍니다.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태중에서부터 부르셨고,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이스라엘뿐 아니라 열방을 위한 구원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그 종은 때때로 자신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사야서에 실린 네 편의 ‘종의 노래’에 등장하는 주의 종 혹은 야훼의 종 곧 수난의 종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예표로 해석하는 반면에 유대교 랍비들은 메시아적 인물로 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는 해석이 더 우세합니다.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야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집단이고, 고난을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을 지닌 집단으로 여깁니다. 49장 3절,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이 해석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이 해석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고난은 대속적 의미보다는 “이방의 빛”이라는 증언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1.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사 49:1-7).

49장 1-7절은 야훼의 종의 소명과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하신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종을 태에서부터 부르셨고, 당신의 종으로 지으셨으며, 그의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이방의 빛으로 삼으셨다는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야훼 하나님은 당신의 종으로 하여금 야곱 곧 이스라엘을 당신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야훼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겠다는 사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야훼의 종은 때때로 자신의 수고가 헛되고 무익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 곧 야훼의 종은 누구일까요? 서문에서 밝혔듯이 그리스도교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으로 보는 반면에 유대교에서는 대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으로 봅니다.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야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도 암시하고 있듯이, 문자적으로 볼 때, 야훼의 종은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로 불리는 ‘야곱’으로 이해됩니다. 야곱은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12지파가 그의 허리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성을 띵니다. 49장 3절은 “너는 나의 종이요....이스라엘이라”고 하였고, 5절은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구절은 야훼의 종이

이스라엘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야곱 곧 이스라엘은 야훼의 영광을 자기 속에 나타낼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야훼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까요? 정답은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는 야훼의 언약이 실현 되는 것’에서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이 누구인가? 이 물음은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히 대두된 구약성경의 화두였습니다.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창 15:13)와 장차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리라’(창 28:15)는 출애굽 사건을 비롯한 ‘고토 귀환’이란 대 명제가 함축된 말이자 구약성경 전체에 담긴 명제 중의 명제입니다. 신약성경에서는 고토 귀환이라는 구약성경의 대 명제가 하늘 가나안 땅 곧 천국으로 승화되었습니다. 더불어서 창세기는 이미 혈통보다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실현을 확고하게 희망(히브리어로 ‘하티크바’ 곧 ‘그 희망’이라고 함)하는 자들의 계보의 시작입니다. 민족의 뿌리와 몸통과 가지들은 혈통보다는 그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 곧 그 언약의 성취를 희망하는 신실함과 충실함에 좌우됩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을 저버리는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천국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사람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이려면, 모름지기 동쪽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는 사람, 야훼께서 반드시 흠어진 자기 민족을 한 곳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으시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자유국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은 그 지향점이 하늘 예루살렘 시온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됨으로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야훼의 좋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스라엘’(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스라엘의 시조입니다. 이 이름은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과 정체성과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야훼의 종의 정체성이 개인으로서의 메시아(그리스도)와 집단으로서의 이스라엘 사이를 오가며 표현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 받은 민족이지만, 부르심에 부응하지 못한 민족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사명을 대행할 모세와 같은 메시아적 인물을 통해 그 사명을 성취하십니다. 따라서 야훼의 좋은 때로는 이스라엘 전체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메시아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유대교인들은 개인으로서의 메시아를 모쉬아크 혹은 제2 모세라 부르는데,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오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교에서는 이미 2천 수 십여 년 전에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예수(히브리어로 ‘예슈야’)님이 제2 모세로 오신 메시아(그리스도)였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교에서 그렇게 믿는 가장 큰 이유는 구약성경의 예언을 문자적으로 풀지 않고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야곱은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인들의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가 됩니다. 이 해석을 지지하는 구절이 49장 6절 후반,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입니다. 유대교는 민족종교이고, 배타적이며, 민족주의적입니다. 게다가 구약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중심, 곧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신’하기 전까지는, 본래 유대민족만의 경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인들은 구약성경을 100퍼센트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종교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야훼의 언약 곧 이스라엘의 회복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것이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이 문자적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에 의해서 실현될 수 없

는 이유입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후반부 장(章)들에 근거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다. 그 근거 곧 구약성경의 새로운 이해들이 담긴 책이 신약성경입니다.

2.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사 49:8-13).

49장 8-13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8절에서 말하는 “은혜의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이때에 야훼께서는 당신의 종을 야훼의 언약을 성취할 자로 세우시고,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황무하였던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언약으로 주신 땅이었지만, 지금은 땅주인들이 바빌론에 유배됨으로 인하여 내버려진 땅임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9-10절,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 인즉, 그들이 주리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별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는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고토에 돌아가는 상황에서 야훼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보호하실 것인지를 알려주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 당시에 야훼께서 히브리민족을 40년간 광야에서 돌보시며 인도하셨던 구원사건을 상기시키는 효과를 갖습니다. 그리고 11-12절,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돌우리니,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냇 땅에서 오리라.”는 사방팔방에 흩어졌던 백성들이 돌아올 뿐 아니라, 심지어는 가장 멀리 떨어진 “시냇 땅”(위치 불명의 먼 동쪽 지역을 상징)에서까지 돌아올 자들이 있음을 암시하며, 구원의 보편성을 재차 강조합니다. 그리고 13절,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는 이스라엘에게 해방과 평화와 기쁨을 주신 야훼,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칭송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혹한 상황, 절망적인 처지에 놓인다 할지라도 믿음과 희망과 인내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자녀를 삼으신 야훼께서는 결단코 우리가 붙잡은 끈을 먼저 놓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바빌론에 유배된 이후 하루 세 번씩 희생 제사를 바치고 예배드렸던 성전예배를 바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예루살렘 제사예배를 대신해서 하루 세 번씩 기도문을 낭송하도록 했는데, 그 기도문을 일컬어 ‘쉐모네 에스레’(열여덟) 혹은 ‘아미다’(일어서서)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오전 오후 해 진후에 “복 받으시옵소서, 하셈(그 이름)이시여!”로 시작되는 열여덟 개의 베라코트를 낭송하다가 주후 90년경에 이단(그리스도교를 지칭)에 관한 기도문을 하나 더 추가하여 19개의 기도문을 낭송합니다. 19개의 아미다 가운데 13개가 예루살렘의 회복, 다윗 왕조의 부활, 흩어진 유대인의 귀환, 성전 재건 등을 간구하는 기도문입니다. 특히 14번째 베라카는 예루살렘의 재건과 시온의 영광 회복을 간구하고 있고, 15번째 베라카는 메시아의 도래와 다윗 왕조의 부활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이후 오늘날까지도 이 기도를 지속하는 이유는 바빌론에서 고토에 돌아왔지만, 가나안 땅은 여전히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차례로 속주로 편입되었고, 유대인들은 그 제국들의 속주민에 불과했기 때문이며, 주후 70-73년과 132-135년에 있었던 유대-로마전쟁에서 패배함으로써 유대인들이 고토에서 추방당하여 또 다시 온 세계로 흩어졌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국가 건국이후에도 ‘아미다’를 계속해서 낭송하는 이유는 아직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이 온전히 다 회복되지 못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으며, 다윗왕국을 재건하실 모쉬아크(메시아)가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사 49:14-26).

49장 14-26절은 시온의 탄식과 야훼의 응답이 교차하는 대화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시온의 탄식 곧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에 대해 야훼께서 해명하시며 회복을 약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겠다는 매우 감동적인 위로의 말씀입니다. 14절에서 시온(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라며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절망적으로 호소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15-16절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비유로 들어, 시온을 결코 잊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결코 과장된 표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창조하셨고 빛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결코 잊지 못할 기억을 상징합니다. 이는 손바닥에 새긴 문신처럼 결코 잊지 못할 영구적인 관계를 의미합니다. 피조물인 인간은 잊어버릴 수 있어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결코 잊을 수 없고 실패할 수 없습니다.

17-21절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시며, 시온의 자녀들이 돌아오고, 폐허가 재건되며, 시온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가득 찰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은 파괴된 예루살렘이 다시 재건되고 번성하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게 될 것을 약속하십니다. “네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혈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네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네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네 과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며 황폐했던 시온이 다시 아름답게 단장하고, 흩어졌던 자녀들이 다시 돌아와 그 수가 너무 많아 비좁을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더해 하나님은 22-26절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통해 시온의 자녀들을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하시며, 억압자들을 심판하고 구속을 완성하실 것을 약속하시며 선포하십니다.: “내가 못 나라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왕들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의 티끌을 핥을 것이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억압하는 자들에게 자기의 살을 떡게 하며, 새 술에 취함 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와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이 구절들은 우리가 아무리 절망적이고 버려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마침내 완전한 회복과 승리를 주실 것임을 강력히 선포합니다.

맺는 말

이처럼 49장은 시온의 절망, 하나님의 위로, 회복의 비전, 구속의 완성이라는 구속사적 전개를 독백이 아닌 교차적 대화 형식을 통해서 깊은 감정적 공감과 신학적 통찰을 제공합니다. 특히

49장은 문자적 이스라엘의 회복 이면에 있는 영감이 가득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영적 이스라엘의 성취에 관한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서 더 감동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망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온전한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구원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가혹한 상황에서 절망할지라도, 우리가 버림받았다, 헛되이 수고하였다는 좌절이 밀려드는 지경에서도 우리는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빛으신 하나님께서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말씀을 되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들에게 예정하신 운명은 최후의 승리, 궁극적인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비록 연단의 과정이 순탄치 않고 거칠며 험하여 좌절하고 낙망할지라도, 끝까지 믿음과 희망과 인내의 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야훼의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에 우리는 모두 “우리가 이겼다”라고 힘차게 외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가: 새490장(통542장), 새491장(통543장)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 49장에 묘사된 “야훼의 종”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서 이루신 사역이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2.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신 말씀이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드려지십니까? 또 그 같은 체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3.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란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리스도’란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인데,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다.

#### 제4과

제목: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핵심구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0).

장 전체: (50-51장)

#### 서문

이사야서 후반부의 역사적 배경은 유대인들의 바빌론 유배 후반기, 곧 바빌론 제국을 무너뜨리고 가장 광활한 땅을 지배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퀴루스)가 등장할 무렵이었습니다. 이사야가 그토록 아름답게 민족의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순한 바람이나 낙관이 아니었습니다. 조상 대대로 전수된 하나님의 언약과 ‘그 희망’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영감 그리고 역사를 읽는 통찰력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글은 바빌론 유배라는 절망의 한복판에서 나온 것이었고, 창조주이시며 구세주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제2 출애굽 사건으로 드러날 것을 노래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희망의 근거는 야훼가 유일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신 창조주이시라는데 있었습니다. 야훼는 일찍이 출애굽 사건을 진두지휘하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하나님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서 해방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기 위해서 제2의 출애굽 사건 곧 탈바빌론 사건을 진두지휘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은 야훼를 신뢰하고 의뢰하며, 압제자들을 두려워말라고 말씀하십니다.

#### 1.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사 50:1-11).

50장은 하나님과 당신의 종의 대화를 통해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대조되는 종의 신실한 믿음과 순종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의 원인은 죄와 불순종 때문이었으며, 야훼의 종은 신실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성취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님의 예표로서 53장에서 드라마틱하게 전개될 야훼의 종의 진가를 살짝 엿보게 됩니다.

1-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며, 그들의 고난이 당신의 무능함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죄와 허물 때문이었음을 밝히십니다. 1절,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거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에서 “너희의 어미”란 말은 유대민족이 바빌론에 유배된 지 한 두 세대가 흘렀음을 말해줍니다. 유대민족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볼 때, “너희의 어미”는 그들의 부모와 조부모를 말합니다. 그리고 “채주”는 바빌론의 느부갓네살(Nebukadnessar II, 604-562 BC)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버린 적이 없고, 그들이 내쫓기고 팔린 것은 죄와 허물로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일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전반부,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는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보내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권면하였지만, 듣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순종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곳이 예레미야서입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거나 건질 능력이 없어서 그들을 아시리아나 바빌론과 같은 수렁에서 건져내

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야훼를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은 그래서 그들에게 바다가 마르고 강들이 말라 사막이 됨같이, 흑암이 하늘을 덮어 마치 굵은 베로 덮인 것 같이 불행이 닥친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어서 죄와 허물로부터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그래서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회개를 반복해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들 가운데 하나가 회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어서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만일 우리에게 버림당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야훼의 종은, 유대인들이 불순종하고 자기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불평한 것과는 반대로, 야훼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연단을 받으며 죄가 없어 무고하게 당한 고난조차도 묵묵히 감당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선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보게 되며, 왜 그분이 오실 자로 예정된 그리스도이셨는지를 마음으로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4-9절에서 우리는 야훼의 종이 하나님의 가르침에 경청하고, 완전히 순종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것을 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는 야훼의 종이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학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으로 다른 이들을 도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6절,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 뱀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는 철저한 자기희생과 겸손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야훼의 종이 인류 구원이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모형과 그림자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7-9절,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므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딪돌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투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종이 그들을 먹으리라.”는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나타냅니다. 가혹한 환난 속에서도 종은 하나님과 그분의 편에 선 사람들이 최후의 승리자가 될 것을 확고히 믿고 있음을 봅니다. 녹록치 않은 삶 속에서 근근이 버티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이 아닐까요?

10-11절에서 종은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10-11절,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보라, 불을 피우고 횃불을 둘러 띤 자여 너희가 다 너희의 불꽃 가운데로 걸어가며, 너희가 피운 횃불 가운데로 걸어갈지어다. 너희가 내 손에서 얻을 것이 이것이라. 너희가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우리라.”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종의 음성을 청종하는 자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를 의뢰함으로 구원을 얻겠지만, 자기가 피운 횃불을 의지하는 자는 “고통이 있는 곳에 누울”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가혹한 현실에서 알팍한 자기 힘, 자기 능력, 자기 재주, 친구나 검색도구 혹은 AI가 알려주는 세상의 지혜만 믿고, 창조주이시며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야훼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자기가

판 깊고 캄캄한 웅덩이에 스스로 갇히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라면 인간이 죄와 허물을 피해갈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진중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2.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사 51:1-8).

이사야 51장은 바빌론에 유배된 상태의 이스라엘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주권적 약속을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의 언약(1-2절), 출애굽 사건(9-10절), 예루살렘의 회복(11, 17-23절)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 구원, 위로가 어떻게 백성 가운데 실현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의를 따르며 야훼를 찾아 구하는” 백성에게 아브라함과 사라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시온을 에덴처럼 회복할 것이라고 위로합니다. 야훼의 율법과 공의는 만민의 빛이 되며, 하늘과 땅이 사라져도 구원은 영원하다고 선언합니다.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두려움을 버리도록 격려 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시온을 회복시키고 슬픔대신 기쁨으로 채웁니다. 야훼의 구원은 확실하며 모든 열방 위에 높이 들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1절,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체성과 믿음의 뿌리를 되새기라는 메시지입니다. “너희를 떠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상징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과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너희를 떠낸 반석”이란 반석 아브라함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떠내어졌다”는 뜻이요, 그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과 약속에서 비롯되었다는 뜻입니다.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기원, 즉 이삭을 낳은 사라를 상징합니다. ‘구덩이’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어내신 자리, 즉 하나님의 창조적 역사와 은혜의 흔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절,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는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가 무엇을 말한 것인지 설명한 말씀입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믿음의 뿌리를 기억하라. 야훼께서 어떻게 그들을 선택하시고 인도하셨는지를 되새기며, 현실이 가혹하고 힘들더라도 야훼를 신뢰하고 믿음의 끈을 놓지 말라는 격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 속에 있었으며, 현실이 아무리 가혹하더라도 야훼는 변함이 없으시며 언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확신을 심어주는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러므로, 3절,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찬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에서 더욱 명확히 드러납니다.

야훼의 자기 백성에 대한 구원은 영원하고, 야훼의 의는 결코 꺾이지 않습니다. 만일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잠시 자기 백성의 연단을 위해 막대기로 삼았던 바빌론을 비롯한 열방을 향해 공의를 펼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4-6절,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나갈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앙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 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 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 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꺾여

지지 아니하리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사람의 비방과 조롱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붙들라고 권면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의를 추구하는 자들,” “야훼를 찾는 자들,” “옳음을 아는 자들,”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점이, 비록 부르심을 입고, 택함을 받아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와 허물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아주 크게 다른 점입니다. 비록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 다 같은 죄인들일지라도, 구원받은 사람들은 “의를 추구하는 자들,” “야훼를 찾는 자들,” “옳음을 아는 자들,” “마음에 하나님의 계명이 있는 자들”인 반면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정반대의 사람들이란 차이가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은 만세전부터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7-8절에서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 같이 종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 같이 짐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3. “여호와와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사 51:9-23).

9-11절은 1-8절에서 야훼께서 주신 위로의 말씀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송입니다.: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저미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 이까! 여호와께 구속 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이 찬양은 출애굽 사건을 상기하며 제2 출애굽 곧 탈바빌론 사건을 속히 일으켜달라는 기원입니다. 따라서 “옛날 옛시대”는 모세 때를 말하고, “라합을 저미시고”에서 “라합”은 이집트를 말한 것이지만, 바빌론을 상징한 것이며, “용을 찌르신”에서 용은 바로(파라오)를 말한 것이고 코브라가 파라오의 수호신이지만, 실제로는 바빌론의 왕을 상징한 것입니다. 바빌론의 왕을 용이라고 한 것은 바빌론의 왕이 바빌론의 수호신 마르둑(Marduk)의 아들 혹은 마르둑의 현현이고, 혼돈의 바다를 상징한 거대한 용인 티아마트(Tiamat)를 물리치고 바람과 바다를 지배한 신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바빌론의 왕은 보통 세 쌍의 뿔과 세 쌍의 날개를 가진 라마수(황소)로 묘사되었지만, 그 얼굴이 사람이었던 것은 라마수가 곧 바빌론의 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무튼 고대 근동세계와 그리스신화에서도 용(라돈, 잠들지 않는 용)이 등장하고 있고, 성경에서도 사단의 상징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극적이었던 것은 홍해가 갈라져 히브리인들이 발로 걸어서 건넌 사건이었습니다. 넓고 깊은 바다가 갈라지고 바닥이 드러나 사람들이 걸어서 건넌다는 것은 그것도 거대한 높이의 바닷물 벽을 양쪽에 두고 그 사이를 걷는다는 것은 아무라도 생각해 낼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야훼께서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고 하신 말씀에 백성이 “여호와와 그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라고 응답하자, 다시 야훼께서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라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시며, 12-16절에서 위대한 선포를 발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 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찌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

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 이 장엄한 선포말씀에 감히 우리가 무엇을 빼고 또 무엇을 보탬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야훼, 천지만물을 짓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킨 하나님,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루살렘 시온에 기초를 놓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시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야훼는 백성이 간구했던 9절,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에 맞춰서 17절에서 “여호와와 그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로 위로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7-23절, “네가 이미 비틀거림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네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네가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 두 가지 일이 네게 닥쳤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라?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누가 너를 위로하라? 네 아들이 곧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 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와 네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 곤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네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 주시는 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림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네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네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에게 네가 네 허리를 땅과 같게, 길거리와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는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셨지만, 이제 그 잔이 제거되고 괴롭히던 자들에게 넘겨지고, 황폐와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글을 읽는 분들 가운데 가혹한 현실에 대해 절망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51장의 엄청난 위로의 말씀으로 회복의 은총을 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 맺는 말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께 쓰임을 받기도 하지만, 때때로 죄와 허물로 인해서 징계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징계는 저주가 아니라, 불의 연단으로써 순금을 정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치는 시련과 연단은 자연법칙에 따른 것도 있고, 징계에 의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예정하신 운명은 순금 곧 최후승리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에게 시련을 안긴 가나안은 물론이고 주변의 강대국들은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언약하셨던 ‘그 희망’을 키우고 단련하는 용광로였지 결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 소재 애빌린 기독교대학교에서 역사학 교수직과 환원연구소(Center for Restoration Studies) 소장직을 역임했던 더글러스 포스터(Douglas A. Foster) 박사는 2020년에 출판한 『알렉산더 캠벨의 생애』라는 책의 결론부분인 331쪽에서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알렉산더 캠벨은 복잡하고, 뛰어나며, 지칠 줄 모르고, 오만하고, 인종 차별적이며, 공격적이고, 다작을 한 지도자였으며, 그리스도교 세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남긴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

님께 쓰임 받았고, 하나님께 징계(단련)도 받은 사람이었다. 그의 영적 후손들은 그의 모든 특성을 물려받았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열정적이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합법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려 애쓰고 있다고 믿는 오만함에 유혹받았고, 종종 그 유혹에 굴복했다. (그러나 이러한 믿음은 캠벨의 후예들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어쩌면 이스라엘(문자적인 나라든 영적인 나라든)이란 하나님의 백성의 특성을 잘 드러낸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겪어왔거나 지금 겪고 있는 시련과 연단은 '회개'를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그리스도인들일수록 대체로 “내가 도대체 무엇을 회개해야 한단거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것 자체가 죄란 것을 인식한다면, 천하에 죄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선하다(히브리어로 '토브')고 간주해주시기 전까지는....

찬송가: 새254장(통186장), 새255장(통187장)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 50장에서 묘사된 '여호와의 종'의 순종적인 모습이 오늘날 내가 고난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에 어떤 도전을 줍니까?
2.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고난 받았음을 지적하신 50장 1절의 말씀이, 나의 삶에서 겪는 어려움을 돌아보는데 어떤 통찰을 줍니까?
3. 이사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 나의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떤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 제5과

제목: “시온이여 깰지어다.”

핵심구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사 52:7).

장 전체: (52장)

## 서문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2절,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11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는 회개와 각성(覺醒)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의 많은 부분은 민족의 생존 곧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길에 대한 성찰의 글입니다. 그 같은 성찰은 위기의 시기에 특별한 영감을 받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라 같은 수재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대민족을 수천 년간 이어진 비참한 떠돌이와 노예의 삶에서 살아남게 한 참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수재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첫째, 천지를 지으신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께서 자기 민족을 불러 세우시고 자기 민족과 조상들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 둘째, 그 하나님이 민족의 시조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일관되게 언약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번영하는 것이었다는 것; 셋째, 민족의 뿌리와 몸통과 가지들은 혈통보다는 그 언약에 대한 굳건한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 곧 그 언약의 성취를 희망하는 신실함과 충실함에 좌우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야훼 하나님의 언약 곧 ‘그 희망’(Ha-Tikvah)을 저버리는 자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이라면, 모름지기 동쪽 예루살렘 시온을 향해서 눈을 고정하는 사람, 야훼께서 반드시 흠어진 자기 민족을 한 곳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으시고 예루살렘 시온에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자유국가를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희망하는 사람입니다. 넷째, 이스라엘이 현재 겪는 고난은 하나님의 계명들을 준수하지 못한 죄와 허물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훼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분이시므로 회개하면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52장의 메시지도 선하신 야훼께서 자기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각성하고 회개할 것과 그러면 회복이 뒤따를 것에 대한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회복의 시간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며, 잃었던 것들을 되찾고 복구하는 시간입니다.

1.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사 52:1-6).

52장 1-6절은 예루살렘 시온이 회복될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은 주전 586년에 바빌론에 멸망을 당한 다윗왕국의 수도였습니다. 1-2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오지 않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는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에 거류하였고 앗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

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 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는 말씀은 자기 백성의 각성과 회개에 대한 보상 즉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온이여”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는 다윗왕국의 상징과 대표성을 띤 시어(詩語)로써 이스라엘 민족과 그 나라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城)의 회복은 엄밀히 말해서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이 유대교인들의 입장입니다. 문자적인 이스라엘 곧 유대인들이 희망하는 문자적인 예루살렘 시온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온전한 회복의 시점인 모쉬아크(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고, 모쉬아크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모쉬아크가 오고 계시다!”(Moshiach Is Coming!). 유대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레스(퀴루스) 황제의 칙령으로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에서 풀려나 고토로 돌아올 수는 있었으나 여전히 페르시아의 속주와 속주민에 불과했습니다. 그 후로는 헬라의 속주와 속주민으로, 그 후로는 로마의 속주와 속주민으로 살아야했습니다. 헬라제국에서 로마제국으로 넘어가기 직전 세워진 하스몬 왕조(140-37 BC) 시대, 즉 마카비 혁명의 성공(164 BC)이후로 인해 다시 로마에 편입된 주전 64년까지 대략 70-100년을 뺀 나머지 세월은 여전히 속주민으로 살다가 주후 68년에서 135년 사이에 있었던 두세 차례의 유대-로마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함으로 유대인들은 속주와 속주민의 권리마저 상실하였고, 유다속주에서 완전히 추방당하였으며, 그 땅은 ‘팔레스타인’으로, 예루살렘은 ‘아일리아 카피톨리나’(Aelia Capitolina)란 이름으로 개명되고 말았습니다. 둘째, 유대교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윗왕손인 메시아에 의한 다윗왕국의 회복으로 봅니다. 다윗왕국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주전 586년 바빌론 왕 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묶여 바빌론으로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야훼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이사야 45장부터 55장까지를 선포토록 하신 시점은 바빌론에 유배된 지 반세기를 눈앞에 둔 시점이었고, 바빌론에 속국이 된 후로부터 70여년을 눈앞에 둔 시점이었습니다.

유대교 랍비들은 다윗왕국이 멸망한 최후 시점을 시드기야가 사망한 해로 봅니다. 전통에 따르면, 시드기야는 네부카드네자르(느부갓네살) 2세가 주전 562년에 사망하고 나서 한 달 이내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나 유대교 랍비들은 네부카드네자르 2세가 사망하고 나서 5년이 지난 주전 557년까지 생존했다고 봅니다. 유대교인들은 이때 이후로 끊긴 왕권이 모쉬아크(메시아)가 오셔서 왕권을 회복하는 때가 진정한 다윗왕국이 회복,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시점으로 봅니다. 메시아(왕)가 다윗왕손이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보통 메시아를 제2 모세와 제2 다윗으로 봅니다. 모세는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구세주였습니다. 다윗은 명실상부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분들이 메시아의 사표(師表) 또는 예표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는 아직 오지 않았고, 비록 오시고 계시다고 믿고는 있지만, 다윗왕국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이사야의 예언 곧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1948년 5월 14일에 건국된 이스라엘을 세속국가로 볼 뿐이지 온전히 회복된 이스라엘로 보지 않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 2천여 년 전에 이미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인류의 하나님인 야훼의 경륜과 계획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다고 보며, 문자적인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곧 그리스도교의 예표

와 모형과 그림자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사야 52장부터의 예언을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의 관점, 곧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고전 1:23-24)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12장 22절에서 성도들의 나라를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라고 했고, 28절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라고 했습니다. 또 계시록의 저자는 21장에서 우리가 받을 나라를 그 누구도 뚫을 수 없는 성벽 두께가 65미터나 되는 거대하고 웅장하며 찬란한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고, 22절에서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유대교인들이 다윗왕국의 회복의 조건으로 예루살렘 성전예배의 재건을 말하는 것과 상반됩니다.

2.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축하셨음이라”(사 52:7-12).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는 나훔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와 맥이 닿아 있고, 로마서 10장 15절,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에도 연관성이 있습니다. 나훔의 메시지는 아시리아 제국의 쇠퇴기, 곧 니느웨의 멸망 직전에 주신 복음이고, 이사야 52장은 바빌론 제국의 쇠퇴기에 주신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메시지는 근원적으로 참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말씀입니다. 나훔과 이사야가 다 야훼의 심판과 위로를 선포했지만, 바울의 선포(케뤼그마)는 앞선 두 예언자들의 복음의 선포가 수백 년이 흐른 후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는가에 해당됩니다. 바울은 야훼의 복음의 성취가 유대인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 구약예언의 문자적 성취가 아닌,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이고 영토중심주의이며, 배타주의가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 곧 민족(유대인과 이방인), 신분계급,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는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계시로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것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으로써 이방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했습니다(엡 3:3-9). 그러므로 이사야 52장 8-10절, “네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축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는 비록 문자적이고 일차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말씀일지라도, 영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마귀의 권세와 죄와 허물로부터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11-12절,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는 계시록 18장에 맞물려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바빌론의 멸망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신 반면, 계시록에서는 하늘에서 내려 보낸 큰 권세를 가진 천사의 힘찬 음성을 빌려 바빌론의 멸망을 외치며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선포하며,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계 18:2).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도다”(계 18:10).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밧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다”(계 18:24).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 사 48:20)고 외쳤습니다. 계시록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늘 예루살렘 시온에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므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전이 없으며, 유대인과 이방인, 성직자와 평신도,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같은 민족 신분 계급의 담이 없습니다. 그 같은 담(예수님의 육체와 동일시 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 허무셨기 때문입니다(히 10:19-20).

3.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사 52:13-15). 52장 13-15절은 이사야서에 실린 네 편의 ‘종의 노래’ 가운데 네 번째 노래의 서두에 해당됩니다.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주의 종’ 혹은 야훼의 종 곧 수난의 종을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의 예표로 해석하는 반면에 유대교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보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랍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야훼의 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면서도 고난의 세월을 살아온 집단이고, 고난을 통해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사명을 지닌 집단으로 여깁니다. 49장 3절에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라서 유대교인들은 야훼의 종의 고난 곧 이스라엘의 고난을 대속적 의미로 보지 않고, “이방의 빛”이라는 증언적 의미로 보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유대교인들은 바빌론으로부터 해방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아직도 성취되지 아니한 모쉬아크가 오시면 성취될 예언으로 보기 때문에 또 문자적인 이스라엘의 회복이란 것이 역사의 부침(浮沈) 곧 흥망성쇠(興亡盛衰)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늘 불안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와 같은 대국들도 늘 불안하고 흔들리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마당에 하물며 소수민족의 아주 작은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들의 밥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야훼의 종’을 십자가에 못 박힌 나사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확신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3-15절,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과 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는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승천하시어 하나님의 우편보좌에 앉으시고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로 높임을 받고 칭송과 찬양을 받고 계신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합니다. 바울은 바리새파에 속한 젊은 유대교학자로서 다메섹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입고 하나님의 신비,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그 신비, 그 경륜, 그 비밀은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었습니다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고전 1:21-25).

맺는 말

유대인들이 국가(國歌)로 만들어 노래하는 ‘그 희망’(Ha-Tikvah)은 아브라함에 의해 시작되었

고, 야곱과 요셉의 믿음(히브리어로 ‘에무나’라 함. ‘에무나’는 야훼의 언약 곧 그 희망을 충실히 붙잡는 믿음을 말함)을 통해서 이어져 갔으며, 그 믿음에 충실했던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첫 번째로 성취되었고, 그 믿음에 충실했던 다윗에 의해서 통일왕국을 이루었다가 솔로몬 사후에 분열되어 북왕국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고, 남왕국 유다가 바빌론 제국에 멸망하여 유배당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야훼의 언약은 불변함으로 그 언약, 그 희망을 충실히 붙잡고 회개하는 한 야훼께서 제2 모세와 제2 다윗을 보내시어 민족을 구원하시고 다윗왕국의 영원함을 만방에 알게 하실 것이란 것입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그 언약, 그 희망이 ‘예슈아 하-나츠리’(ישוע הנצרי) 곧 “나사렛 사람 예슈아”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보았고 우리도 또한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대인들의 하나님이실 뿐 아니라, 인류의 하나님이시며 인류를 사랑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그 언약, 그 희망의 궁극적인 장소가 언제나 불안정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유한한 지상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이 아니고, 영원히 안정적이고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늘 가나안 땅 예루살렘 시온이며, 그 언약, 그 희망을 주신 야훼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믿는 자들에게 민족 색깔 남녀노소 구별 없이 무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고 시민권자가 되게 하며, 자녀가 되게 하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민족이 추구해 왔던 허망한 문자적인 지상에서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에서의 복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지상의 삶을 포기 한다는 뜻이 아니라, 보다 더 영원한 무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 그것을 언약하신 야훼를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과 더불어 섬기며 이 땅에서의 곤고함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며 믿음과 인내의 끈을 단단히 붙잡는 것입니다.

찬송가: 새90장(통98장), 새91장(통91장)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 52장 1-2절에서 시온에게 “깨지어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오늘날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의미를 줍니까?
2. “좋은 소식을 전하며...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7절)라는 말씀이 복음을 전해야 할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된다고 보십니까?
3. 하나님께서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호위하시리라.”(12절)고 약속하신 말씀이, 가혹한 세상 속에서 믿음생활을 유지하는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줍니까?

## 제6과

제목: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핵심구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장 전체: (53-54장)

### 서문

‘야훼의 종’의 노래는 이사야 40-55장에 등장하는 네 편의 시적 예언으로, 고난과 희망, 회개와 구원이라는 깊은 신학적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이 노래들은 단순한 인물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는 신비로운 종의 초상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야훼의 종’의 노래 핵심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래는 42장 1-9절로써 정의와 평화의 사명이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종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온유하게 정의를 선포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습니다. 그는 민족의 빛이자 성스런 언약의 중재자로서 세상을 회복시키십니다. 둘째 노래는 49장 1-13절로써 보편적 구원의 사명이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종은 모태에서부터 부름 받은 존재로, 이스라엘뿐 아니라 땅 끝까지 구원을 전하는 사명을 가집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사역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셋째 노래는 50장 4-9절로써 순종과 인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종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모욕과 박해를 견디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의 힘은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에서 나옵니다. 넷째 노래는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로써 대속적 고난과 구속이라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노래로, 종은 죄 없는 희생양으로 묘사됩니다. 그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며, 그의 상처로 우리가 치유됩니다. 결국 하나님께 영광과 생명을 보상받습니다. 이 종은 고난을 통해 구원을 성취합니다. 종은 고통 받지만, 그 고난은 타인을 위한 대속적 의미를 지닙니다. 종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정의와 빛을 전하는 사명을 수행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미칩니다. 종은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며, 그 신뢰 속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신약성경에서는 이 종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특징으로 받아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장은 떠돌이와 노예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과 그리스도인들의 역경의 삶 속에서 피어난 희망의 신학이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시적으로 드러낸 깊은 묵상입니다.

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사 53:1-12).

이사야 53장은 전통적으로 그리스도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을 예언한 장으로 해석되지만, 유대교에서는 이 본문을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당해온 집단적 수난으로 해석합니다. 이사야 41장 8절, 44장 1절, 49장 3절에서 “종”을 “이스라엘”로 지칭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53장의 ‘수난의 종’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 역사 속에서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집트에서의 노예생활, 바빌론에서의 유배생활, 로마제국시대에 예루살렘 폐망과 고국에서의 추방, 중세 유럽에서의 박해와 추방, 홀로코스트 등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지난 이천년간 학살된 유대인의 숫자가 이천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런 역사적 정황만 보면, 이사야 53장의 묘사는 분명 이스라엘 집단을 말한 것처럼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3장은 “우리의 죄고를 지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했다.”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 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다.”와 같이 대속적 고난으로 해석될 여지가 너무 많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집단적으로 대속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가 유대 민족이 역사적으로 겪은 사회적 배척과 차별을 대신할 수 있는지,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를 이스라엘이 타 민족의 죄와 갈등 속에서 희생양이 되어온 역사로 볼 수 있는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이”가 유대인들이 전쟁, 포로, 학살 속에서 무력하게 끌려간 모습을 말한다고 볼 수 있는지 각자가 판단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훼의 종’에 대한 해석의 차이는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를 첨예하게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야훼의 종을 집단적으로 이스라엘로 보는 입장은 종의 고난을 대속적인 의미보다는 “이방의 빛”이라는 증언적 의미를 지니며,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구원자이심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해왔는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의 직무를 수행했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들 곧 “이방의 빛”과 “제사장의 나라”의 직무 수행은 우리가 다 인정하다시피 그리스도교의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지난 이천년간 공격적으로 수행되어져왔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민족주의적이고 배타주의여서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한 인식이 매우 희박하였고, 하나님의 계명들의 율타리 법들(Gezairoth 혹은 구전 토라), 예를 들어서, 안식일 법, 손 씻기 법, 음식 법과 같은 수많은 규례들을 만들어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사실상 차단시켰습니다. 게다가 유대교는 민족종교이고 야훼는 조상들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민족의 신이며, 자기 민족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계명들(언약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키는 준수여부에 따라 생존이 좌우된다고 믿는 배타적인 종교입니다. 유일하게 2천 년 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만 이방인들을 유대교에 개종시키는 전도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대다수가 이방인들인 남의 나라들에 얹혀살아야 했고, 그리스-로마 신화에서 보듯이 초월적인 능력자들이라는 것만 빼면, 인간만도 못한 제우스와 같은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들 가운데는 유대인들의 윤리적인 삶을 동경하는 이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유대교 회당을 출입했던 대다수의 이방인들은 완전 개종자들이 아니라, 문의 개종자 즉 절반 개종자들이었습니다. 그 조차도 그들의 다수가 바울의 전도여행 때 그리스도교로 다시 개종했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묘사되어 있듯이, 바울을 수없이 투옥시키고, 회당(공회 곧 율법재판정)에 끌고 가 사십에 하나를 감한 때를 다섯 번 이상 때리며, 돌로 몰매질을 하여 죽음 직전까지 몰고 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극우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적 그리스도인들(Messianic Jews)과 예배당에 몸쓸 짓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무엇 때문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 종족으로부터 추방과 심한 경우 신체 훼손이라는 박해를 무릅쓰면서까지 조상대대로 읽고 암기하며 심지어 몸에 부착까지 하던 계명들과 각종 규례들과 매일 하루 세 번씩 낭송하는 ‘아미다’(쉐모네 에스레) 기도문들과 각종 종교축제들이 금하는 ‘예슈아’(예수)를 메시아로 믿을까요? 본문을 공부하면서 그 점을 함께 묵상하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2.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

라”(사 54:1-10).

이사야 54장 1-10절은 야훼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부인의 관계로 묘사합니다. 이 부부 관계의 정확이 드라마틱하게 묘사된 곳이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는 북 이스라엘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로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이 결혼은 단순히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회복을 향한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고멜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그녀를 다시 받아들이곤 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배신한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키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사야 54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당신을 이스라엘의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며, 6-7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네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하십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결혼한 부부라도 이혼이 적지 않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관계에서는 결단코 이혼이란 것이 성립될 수 없습니다. 본문 7절에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잠시” 버리시거나 “잠시” 낮을 피하실 수 있으나 결단코 버릴 수는 없으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선택과 결정에 오류나 실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으로 설명을 보충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내(상징적으로)로 택하신 것은 절대의지로 하신 것이고, “잠시” 버리시거나 낮을 피하신 것은 허락의지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관계는 훈계의지로 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훈계의지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관계를 언약 곧 계명으로 맺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계명으로 묶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기로 언약하고 하나님의 아내가 된다는 뜻이고, 허락의지란 하나님의 아내가 된 자기 백성이 언약한 계명을 준수할지 말지의 결정을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다는 뜻입니다. 인간은 죄와 허물을 피할 수 없는 피조물이므로 고멜처럼 남편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는 경향이 크지만, 하나님은 대체로 허락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당신의 지극한 사랑을 각성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집나간 들째 아들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시고, 돌아오는 자를 최상의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분이시지, 누군가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지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당신의 아내의 위치로 강제로 데려다 앉히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시” 버리시고, “잠시” 낮을 피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 곧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그들이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외치며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제자리를 찾는 일이며, 영광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만 돌아서면 됩니다. 10절에서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런 점에서 이사야 54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함으로 고난과 수치에서 회복과 영광으로 나아가는 여정을 보여주며, 하나님과의 언약이 얼마나 깊고 변함없는지를 감동적으로 보여줍니다.

3.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사 54:11-17).

이사야 54장 11-17절은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가 능력이 크시고 사랑이 지극하신 자기 남편인 야훼께로 돌아오면 누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 영광을 11-12절에서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화려한 성에 비교하셨습니다. 이는 가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과 희망과 인내의 끈을 놓지 아니한 끝까지 견딘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도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행위를 가지라”(계 2:5). “죽도록 충성하라”(계 2:10). “회개하라”(계 2:16). “굳게 잡으라”(계 2:25).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계 3:3). “네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계 3:11). “네가 열심을 내라”(계 3:19).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쥐서 먹게 하리라”(계 2:7).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계 2:1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주겠다”(계 2:17). “새벽별을 주리라”(계 2:28). “이기는 자는 ...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계 3:5).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계 3:12).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계 3:21). 또 예수님은 계시록 21장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거주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11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 같이 맑더라.”고 했고, 18-21절,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고(계 7:16), 하나님과 어린 양이 사람과 함께 살며(계 22:3),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고(사 65:18),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곳이며(계 21:4), 밤이 없고, 해와 전기가 필요 없는 곳이고(계 22:5), 정의롭고 평화로운 곳이며,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고, 저주가 없고(계 22:3; 사 65:25), 질병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21:4)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전의 실수나 잘못이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 곳이고(사 65:17; 계 21:4), 세세 무궁토록 왕 노릇 하는 곳이며(계 22:5), 남에게 지배를 받거나 고용 당하지 않는 곳이고, 영원토록 보호받으며 안식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54장 17절에서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선 모든 성도들에게 궁극적으로 주어질 축복입니다.

맺는 말

이사야 54장은 직접적으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지만, 이사야 53장의 연장

선상에서 읽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장입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이사야 53장의 수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한 말씀입니다. 따라서 54장은 그 종을 통해 성취될 구속과 회복의 열매들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사야 54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주의 재림과 동시에 주어질 영원한 축복을 묘사한 말씀입니다. 53장에서 고난 받는 종의 희생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는 구원 사건을 묘사했다면, 54장에서는 그 구원 이후의 결과로,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53장의 여호와의 종의 대속적 고난은 54장에서 고난 이후의 회복과 확장으로, 53장의 죄를 대신한 희생이 54장에서는 구속받은 자의 새로운 삶으로, 53장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의 만남이 54장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언약적 사랑으로, 53장에서 많은 자손을 낳게 하심이 54장에서는 장막을 넓히는 확장된 사명으로, 53장에서 상처를 통한 치유가 54장에서는 수치 대신 영광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역이 펼쳐집니다. 또 이사야 53-54장은 십자가와 부활, 고난과 회복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신 십자가는 우리 죄의 값을 치른 희생이었고, 그 이후 주어진 회복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장된 미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말고,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야 합니다. 죽음이 없는 부활이 없듯이, 십자가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우리는 가혹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희망과 인내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회복의 약속을 바라봐야 합니다.

찬송가: 새482장(통49장), 새486장(통474장),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 53장에 묘사된 ‘수난의 종’이,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유대교인들의 주장과 달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깊이 살펴보셨습니까?
2. 이사야 54장에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는 야훼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나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3.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최후 승리, 곧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복된 미래를 확신하고 희망하십니까?

## 제7과

제목: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핵심구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장 전체: (55장)

### 서문

이사야의 주요 사상 가운데 하나가 시오니즘(Zionism)입니다. 시오니즘이란 예루살렘 시온에로의 ‘오름’ 사상에 맥이 닿아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오름’을 ‘알리야’라 하는데, ‘알리야’는 3천 년 가까이 떠돌이와 노예로 살았던 유대인들의 집단무의식 속에 담긴 가장 원초적인 것으로서, 시오니즘은 야훼 하나님께서 흩어진 자기 민족을 예루살렘 시온으로 모으실 것, 곧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희망하는 바를 실행하고자 하는 사상이나 행위를 말합니다.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와 반세기가 넘게 힘겨운 생활을 하면서 크게 지치고 좌절한 자기 민족에게 해방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형기를 마친 장기수가 석방되어 귀가하듯이 유대인들도 머지않아 고토에 돌아가게 될 것을 선포하시고 위로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지난날의 잘못을 용서받고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신 야훼께서 바빌론의 포로생활이라는 흑암과 혼돈과 죽음을 빛과 질서와 생명으로 재창조하시기 위해 제2 출애굽 사건을 펼치실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그들이 먼저 해야 할 세 가지 일들을 55장에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 1.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사 55:1-2).

첫째, 야훼 하나님의 은혜의 샘으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지극히 풍성하신 분이신 것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유배생활로 인해서 영적 갈증과 허기에 시달려왔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에게 물도, 포도주도 우유도 은혜로 값없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절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고 은혜의 잔치로 초청하십니다. 여기서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좋은 것”과 “기름진 것”에 상반된 것으로서 “양식이 아닌 것”과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아무리 마시고 먹어도 채울 수 없는 영적 갈증과 허기를 말하는 것이고,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그들의 영적 갈증과 허기를 채워줄 민족 해방과 고국 땅으로 돌아가 누릴 자유와 평화를 말합니다.

바빌론 포로기에 유대인들은 많은 갈등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바빌론은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번성한 도시였고, 뛰어난 문명과 풍요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그 같은 것들에 목말라했거나 허기를 느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목마름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었고, 그들의 허기는 포도주와 젖을 사지 못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빌론에서 거주했던 곳은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들이었고 일정부분 생업인 목축도 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목말랐던 것은 예루살렘과 시온에서의 자유였을

것이고, 약속의 땅 조국에서 먹고 마시는 평화로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시편 137편을 보면, 유대인들은 삶이 비참했거나 중노동 때문에 슬퍼한 것이 아니라, 고국이 그리워 슬퍼했습니다. 따라서 55장 1-2절은 야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이 정말 목말라 하고 허기져하는 것, 곧 자유와 평화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목말라했고 허기를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시편 137편과 베르디의 오페라 「나부코」(네부카드네자르 2세)에 나오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감상해봅시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와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시편 137:1-6).

가거라. 내 상념이여, 금빛 날개를 타고 날아가라. 가거라.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 불고, 향기에 찬 우리 조국의 비탈과 언덕으로 날아가 쉬어라. 요단의 큰 강둑과 시온의 무너진 탑들에 참배를 하라. 오, 너무도 사랑하는 빼앗긴 조국이여, 오, 절망에 찬 소중한 추억이여, 예언자의 금빛 하프여, 그대는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가? 우리 가슴속 기억에 다시 불을 붙이고 지나간 시절을 이야기해 다오. 예루살렘의 잔인한 운명처럼 쓰라린 비탄의 시를 노래하자. 인내할 힘을 주는 노래로 주께서 너에게 용기를 주시리라(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같은 맥락에서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였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9절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아무리 갈급해하고 심하게 허기를 느낀다고 해도 주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2.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사 55:3-5).

둘째, 야훼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청하여 음식준비에 분주했던 마르다보다, 당신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던 동생 마리아를 칭찬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눅 10:38-42). 야훼께서도 3-4절에서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3절 후반,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는 사도행전 13장 34절,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 씌지 않게 하셨으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느니라”에 연결됩니다. 야훼께서 나아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어둠이 빛이 되고, 혼돈이 질서가 되며, 죽음이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문자적 이스라엘이 그렇고,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서와 계시록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경고성 메시지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

겠습니까? 듣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이며 재앙을 면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인간을 구원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롬 10:17).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고 세상 돌아가는 판세를 읽는 것은 개인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이 귀를 열어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면, 그 사람 개인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못 갖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사가 걸린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모세와 같은 양치는 목자들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에 귀를 기우렸기 때문에 생긴 나라입니다. 반면에 유다왕국이 멸망한 것은 야훼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전달한 경고를 유다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가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비극이었습니다. 유다왕국의 여호야김이 다스렸던 시기인 주전 609-598년에는 유다왕국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는 징조들이 많았습니다. 주전 605년에 네부카드네자르 2세(느부갓네살)는 갈그미스에서 앗수리아와 이집트의 연합군을 전멸시켰고, 이로 인해서 이집트는 유다왕국에 대한 영향력을 잃고 쇠퇴의 길을 걸었으며, 앗수리아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멩에를 벗어버리려고 애를 썼습니다. 이 때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에게 바벨론에 저항하지 말고 이집트에 의지하지 말라고 충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민족주의자들에게 핍박을 받아 죽음의 위기를 수차례 맞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다윗언약과 성전과 왕권이 유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고, ‘여호와와 성전’이 자기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민족주의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성전을 마술적으로 믿지 말고 즉시 회개하고 금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었던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주전 598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고, 바벨론의 공격이 있기 직전에 사망했습니다. 결국 유다왕국은 다음 해인 597년에 바벨론 군에 능욕을 당했고, 왕위에 오른 지 3달밖에 되지 못한 18살의 여호야김과 지도자들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갔습니다. 주전 605년에 이어 두 번째 유배였습니다.

바벨론의 네부카드네자르 2세(느부갓네살)는 여호야김의 숙부이자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시드기야를 잡혀간 여호야김을 대신해서 왕으로 임명했습니다. 시드기야 역시 친 이집트 파와 하나냐와 스마야와 같은 거짓 예언자들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하나냐는 포로가 된 사람들이 신속하게 돌아오고, 성전 보물들도 곧 되찾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의 예언을 부정하고 유다가 회복되려면 적어도 70여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에 반기를 들지 말고, 복종하도록 권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애국애족주의자들에게 혹심한 핍박을 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닫힌 눈과 막힌 귀로 보고 듣게 되었을 때, 예레미야는 분명 매국노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토굴과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시위대 뜰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의 충고를 거부하고 신하들의 말을 듣고 이집트의 편에 서서 주전 589년에 바벨론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반역 소식을 듣고 즉시 군대를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었습니다. 바벨론 군사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했고,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 소경을 만든 다음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이로써 제3차에 걸쳐 바벨론의 침략과 유배가 완결되고 유다왕국은 철저히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끝까지 살아남습니다.

3.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6-13).

셋째,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사야의 입을 빌려 6-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8-13절은 회개하고 야훼께로 돌아서야 할 이유를 말씀하신 구절들입니다. 앞에서 예레미야가 전달한 야훼의 생각과 뜻이 유다의 마지막 왕들과 궁정 선지자들의 생각과 달랐듯이, 야훼께서는 8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셨고, 9절에서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고 하셨습니다. 또 10-13절에서는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주어질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과중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쥘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10-13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 후 고국 땅에 돌아가서 누릴 축복들을 상징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해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눅 15장).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다만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말씀에 설득력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의 주장처럼 절대자이신 하나님이 일부는 무조건적으로 거절할 수 없는 은혜로 선택하시고 일부는 버리셨다고 말한다면, 아버지에게 집을 나가 살겠다고 자기 몫의 유산까지 챙겨서 집나간 자는 하나님께서 버린 자이니, 아버지께서 기다리실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속적으로 말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또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는 예수님께서 주신 마태복음 7장 7-11절의 말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에 연결됩니다.

### 맺는 말

이사야 55장을 독일의 시인 쉴러(1759-1805)가 26세 때에 쓴 ‘환희의 부침’이란 송가로 끝맺으려 합니다. 시의 내용 가운데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희여, 태양이 무한한 하늘의 궤도를 즐겁게 날듯, 형제여, 그대들의 길을 달려라. 영웅이 승리의 길을 환희에 넘쳐 달리듯... 형제여! 별의 저편에는 사랑하는 주가 계시니, 억만의 백성들이여, 앞드려 빌겠느냐? 세계의 만민들이여, 조물주를 믿겠느냐? 별의 저편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찾으라. 별들 위에 주님은 계신다.... 너희는 앞드려 있는가, 수백만 사람아? 너희는 창조

주를 예감하는가, 세상 사람아? 별 하늘 위에서 그를 찾으라. 형제여! 형제여! 별 하늘 위에서 그를 찾으라. 반드시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신다.

쉴러는 독일의 전제 군주제에 반기를 들었던 청년으로서 고국을 탈출하여 이국을 떠돌던 고통의 세월이 있고 난 직후에 이 시를 썼다고 합니다. 이 시가 유명해진 것은 베토벤이 이 시에 곡을 붙여 교향곡 제9번 제4악장 합창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베토벤은 ‘고뇌를 통한 환희’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유명한 곡을 만들었습니다. 환희는 배가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항구를 떠나 거친 바다와 폭풍에 맞서며 달려갈 때 찾아옵니다. 이 곡을 지을 당시 베토벤은 꺾병으로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고, 건강악화와 소송사건과 극한의 가난까지 최악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총 70여분의 연주시간이 걸리는 전체 4악장 가운데, 제1악장에서 비극과 싸워 이긴 생애를 회고하고, 제2악장에서 정화(淨化)된 영웅적인 해학을, 제3악장에서 희망을, 그리고 제4악장에서 ‘쉴러의 송가, 환희에 부침’을 합창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은 홍해를 무사히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고, 계시록 15장은 붉은 유리바다를 건넌 후에 승리의 노래를 합창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승리의 합창대열에 끼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에 값진 투자를 해야 합니다. 일시적이고 세속적인 쾌락이나 기쁨이 아닌,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환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해야 할 것은 쉴러의 노래처럼 창조주를 예감하고 창조주를 찾고 창조주를 믿는 것입니다. 반드시 사랑하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고 일생을 구도자의 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찬송가: 새64장(통13장), 새68장(통32장)

말씀을 새기며

1. “돈 없는 자도 오라.”는 1절의 말씀이 오늘날 내가 생각하는 구원의 개념과 어떤 차이를 보여줍니까? 나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2.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는 2절의 말씀이 내가 삶에서 헛되이 추구했던 것들을 돌아보게 합니까? 무엇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할까요?
3.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는 11절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에 어떤 확신과 용기를 줍니까?

## 제8과

제목: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핵심구절: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사 56:2).

장 전체: (56장)

### 서문

이사야 56장 1절에서 “지키며”(שמר, shamr)와 “행하라”(אשא, asah)라는 동사들은 주로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것과 관련됩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야훼와 체결한 “언약을 굳게 지키는” 것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야훼께서 이스라엘의 재창조 곧 제2 출애굽 사건을 펼치시기 전에 야훼의 백성이 먼저 해야 할 것들, 곧 55장에서 언급된 세 가지에 이어서 네 번째로 요구된 것입니다. 따라서 1절에서 말씀하신 “정의”와 “의”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할라카’(Halakhah), 곧 “사람이 걷는 길”을 말한 것입니다.

일상의 행동과 실천에 있어서 옳고 그름을 가장 명확하게 구별하여 가장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유대교인들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세계에서 가장 윤리의식이 강하고 가장 율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토라(Torah)라 불리는 오경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하라”(248개) 또는 “하지 말라”(365개)고 명하신 613개의 계명들(mitzvot)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명들을 우발적으로 혹은 실수로 범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랍비들이 제정한 수많은 율타리법(gezeiroth)들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법들, 곧 계명들과 율타리법들 또는 모든 관습법들, 유대인들의 일상의 행동과 실천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모든 규정과 시행세칙들을 통틀어서 할라카(Halakhah)라 부릅니다. 여기에는 일상의 모든 것, 즉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 때까지 행하는 모든 것,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 입을 수 있는 것과 입을 수 없는 것, 손 씻는 방법, 그릇 씻는 방법, 몸치장하는 방법, 업무를 보는 방법, 결혼과 이혼, 축일들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 하나님과 이웃과 동물을 취급하는 방법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규제하는 법들이 포함됩니다. 유대교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8절에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에서 보듯이, ‘할라카’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예루살렘 시온에서 자유민이 되고 자유 국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 1.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사 56:1-2).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할라카 중의 할라카에 해당됩니다. 이사야 56장은 1절에서 야훼는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2절에서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며 정확히 집어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한다고 생각할까요?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계명은 십계명 가운데 제4계명인데, 내용은 제칠일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지내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비유대인들은 이 안식일 계명을 ‘직장에 출근하지 말라.’거나 ‘주중에 진행하던 모든 생업을 중단하라’는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이 일이고, 무엇이 일이 아닌가라는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라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수천 년을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명이 바뀌면 생활양식도 바뀝니다. 이 바뀐 생활패턴에서 부딪치는 새로운 문제들 때문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그들의 행위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혹은 해도 좋을 일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유대교인들은 안식일에 금지된 일의 범주를 ‘창조행위’(Melachot)에 국한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6일 동안 천지만물을 만드셨고, 제칠일인 안식일에 쉬셨습니다(창 2:2). 안식일에 창조를 멈추신 것은 천지만물이 다 완성되었고 전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멈추셨던 것처럼 인간들도 안식일에 모든 창조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출 20:8-11). 안식일에 일을 멈추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사실과 우주가 인간의 개입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일을 멈춤으로써 창조주를 진정으로 하나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개념을 ‘완성’으로 생각합니다. 세계의 완성, 나의 완성, 하나 됨으로 가는 길(path) 곧 할라카(halacha)라고 말합니다.

셋째, 유대교인들은 인간의 창조행위를 39가지의 범주로 규정합니다. 성경은 무엇이 “인간의 창조행위”인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광야시대에 성막(Mishkan)을 짓도록 한 출애굽기 31-35장의 명령을 통해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성막건축은 그 자체가 세계의 축소판이며, 창조행태의 모든 것을 대표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넷째, 유대교인들은 성막건축에 필요한 39가지 범주의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의 범주로 간주합니다. 유대인들의 구전인 미쉬나(Mishnah, Shabbat 7:2)에는 성막을 건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39가지 창조행위의 범주를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39가지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행위들을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들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만드는 39개의 과정에 연관된 일들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창조활동이라는 것입니다.

## 2.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사 56:3-8).

56장 3-8절의 핵심 내용은 이방인일지라도 야훼께 연합한 자 곧 야훼 종교로 개종하여 야훼의 “안식일을 지키며,” 야훼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야훼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에게 5절에서 야훼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으며, 또 6-7절에서 야훼와 “연합하여” 야훼를 “섬기며” 야훼의 “이름을 사랑하며” 야훼의 “종이 되며” 야훼의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야훼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들”을 야훼가 야훼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야훼의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야훼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야훼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고 하셨습니다.

기본적으로 유대교도 개종자를 받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계명을 지키되 할례를 받지 않고 개종침례까지만 받는 문(門)의(절반) 개종자가 있고, 할례까지 받는 의의 개종자가 있습니다. 의의 개종자는 사실상 국적을 바꾸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튀르키예(Türkiye)에 있는 아프로

디시아스(Aphrodisias)에서 1977년에 발굴된 2세기경 회당건립 후원자 명단이 새겨진 기념비에는 유대인이 69명인데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곧 문의 개종자가 무려 54명이나 되었고, 의의개종자도 3명이나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기념비는 초기 그리스도교 시대에 회당을 출입하면서 유대교 신앙을 받아 드린 이방인들이 얼마나 많았는가를 알게 해주는 아주 중요한 고고학적 자료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교 복음을 받아드릴 준비된 축복의 그릇들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방지역에 세운 개척교회들의 멤버들 일부가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핍박했던 여러 이유들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자기들의 지지기반이었던 이방인(헬라인) 교인들을 바울에게 빼앗긴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을 어떻게 지켜야 8절의 말씀에서처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들을 모으시는” 야훼께서 “이미 모든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실” 것이라고 믿었을까요? 답은 야훼의 계명들(Mitzvot)을 철저히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유대교인들은 계명들이 실수로나 오역으로 잘못 실행되는 일이 없도록 막기 위해서 규례들(장로들의 유전, 구전 토라)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그 가운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철저히 지키는 것은 아닐지라도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들입니다.

나뭇가지와 잎을 뽑거나 자르기, 꽃 꺾기, 과일 따기, 채소 또는 나물채취하기, 잔디 깎기, 화초에 물주기를 할 수 없습니다. 밭 갈기, 씨뿌리기, 과일, 꽃, 나뭇가지 등을 모우기, 타작하기, 알곡 고르기, 과일을 짜서 주스내기, 상한 과일이나 음식, 더러운 그릇 등을 골라내는 것이 금지됩니다. 빵기나 찢기, 체질하기, 까불리기, 반죽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불 켜기와 끄기, 음식과 물질에 열을 가해 변화를 주는 것이 금지됩니다. 손발톱 깎기, 털 자르기, 털 뽑기, 머리 빗질도 안 됩니다. 머리털이 뽑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부드러운 털 빗은 허용됩니다. 빨래와 샤워도 안 됩니다. 뺨친 머리칼을 단정히 하기 위해서 물을 뿌리는 것만 허용됩니다. 화장도 안 되고 선댄도 안 됩니다. 입술에 아무것도 문질러 바를 수 없습니다. 바느질도 안 됩니다. 접착제나 압침 사용도 안 됩니다. 종이우유팩을 여는 것도 안 됩니다. 절이기, 소금뿌리기 등의 방부처리도 안 됩니다. 알파벳 두 자 이상 쓰기, 선긋기도 안 됩니다. 심지어 글쓰기를 하게 할 어떤 행위도 금지됩니다. 반대로 알파벳 두 자 이상을 지워서도 안 됩니다. 절취선을 따라 티슈박스를 개봉하는 것도 안 되고, 두루마리휴지를 떼어낼 수 없습니다. 쇼핑을 할 수 없고,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땅에다 대고 무엇을 짓거나 수리를 해서도 안 되고, 해체도 안 됩니다. 불을 피우거나 끌 수 없고, 전기스위치를 켜고 끌 수 없습니다. 자동차의 시동도 걸 수 없습니다.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 끈을 끼우는 것도 안 됩니다. 악기연주가 금지 됩니다. 람비들은 우발적으로 조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래하기와 휘파람 부는 것은 허용됩니다. 율법은 안식일에 개인영역에서 공공영역으로 혹은 그 반대 방향으로 물건 옮기기, 운반하기, 던지기, 밀기 등을 금지합니다. 공공영역에서는 대략 2미터 이상 물건을 운반할 수 없습니다. 단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목숨을 구하는 일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운전도 할 수 있고, 전화도 쓸 수 있고, 그밖에 행동들도 필요에 따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 법을 지키는 것보다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यो,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사 56:9-12).

야훼 하나님은 이사야의 입을 빌려 55장 9-12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짐승들,” “개들,”

“파수꾼들,” “목자들”에 비유하시면서 그들에게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병어리 개들이라.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죽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화가 있으라.”며 이보다 더한 독설을 유대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퍼부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법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참 의미를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두셨습니다. 그것은 살림과 생명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의 금지에 두고 이것저것 하지 말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면,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미를 창조행위에 두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질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오늘날의 안식일 법과는 달리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에 위급상황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조차도 금했던 것 같습니다.

유대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이 하나님의 창조행위 곧 어둠이 빛이 되게 하는 것, 혼돈이 질서가 되게 하는 것, 죽음이 생명이 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이 같은 창조행위를 안식일에 더욱 적극적으로 해야 할 빛의 일, 생명의 일로 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대교인들이 성막건축과 관련된 39가지의 일을 창조행위의 39가지 범주로 보고, 이것들을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의 범주로 확대 해석한 것을 비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서의 ‘일’은 하나님의 일, 곧 창조행위가 아니라, 인간들의 일, 곧 어둠과 죽음의 일을 말합니다. 빛의 일보다는 어둠의 일, 질서의 일보다는 혼돈의 일, 생명의 일보다는 죽음의 일들을 일삼는 것이 인간들의 일입니다. 이런 일들을 안식일 하루만이라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분의 빛의 일과 생명의 일을 묵상하고 본받으라는 것이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참 뜻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이 가장 잘 드러난 장면이 마태복음 12장 9-13절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갔을 때, 거기 말라버린 한 쪽 손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에게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구해 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마가복음 4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리고는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하신 말씀은 유대교인들이 안식일에 창조행위, 곧 선을 행할 수 없다고 한 주장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주장입니다.

## 맺는 말

유대교인들에게 있어서 세속생활과 종교생활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입니다.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정(淨)한 것과 부정(不淨)한 것 그리고 거룩한(聖) 것으로 나누는데, 야훼께서 말씀하신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결국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정한 것들만을 가까이 하라는 계명이라고 믿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윤리의식과 실천적 행위의 장점은 그들이 더 이상 잘 지킬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계명들과 율타리 법들을 지킨다는데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근본인 하나님의 계명들에서 너무 동떨어진 율타리 법들을 만들어 지

킨다는데 있습니다. 유대교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에 대한 사례들이 신약성경 이곳저곳에 실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사야서는 일차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먼 훗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질 신약성경교회를, 선지자가 의식을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찬송가: 새293장(통414장), 새295장(통417장),

말씀을 새기며

1. 이사야서의 예언들이 문자적 이스라엘에뿐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인 그리스도교에 주신 말씀인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2.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의 실체인 주일(주님의 날)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3. 예수님은 하나님의 613개의 계명들을 통틀어 한 단어로 요약하셨습니다. 혹시 그 단어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계십니까?(참고: 마 22:37-40).